



# 보도자료

문의

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최기성 실장(02-3660-1824), 이은경 책임(1894)  
NPR 진신혜 과장(02-2257-6370), 박지영 대리(02-6949-6191)

##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운전자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'차봇' 선보인다

- ◆ SNS, 앱 내 다양한 온·오프라인 프로모션 운영 및 현장 방문객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진행
- ◆ AI 사고수리 견적 서비스 등 빅데이터 기반의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체험
- ◆ 자동차 및 라이프스타일 용품 판매와 더불어 차봇마켓에서 실제 판매 중인 제품 함께 전시할 예정
- ◆ 차봇모터스, 정통 오프로더 '이네오스 그레나디어' 공개 예정

2023서울모빌리티쇼(Seoul Mobility Show 2023)에서 운전자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.

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(위원장 강남훈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, 이하 조직위)는 오는 3월 31일(금) 개막하는 '2023서울모빌리티쇼'에 <차봇>플랫폼을 운영 중인 차봇 모빌리티(대표 강성근)가 참가한다고 28일(화) 밝혔다.

차봇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'사고-타고-파는' 운전자 생애 주기 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.

또한, 인스타그램 및 앱 내에서 서울모빌리티쇼 초대권 증정 사전이벤트, 서울모빌리티쇼 기간에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차봇 앱 설치 및 차량등록 유도 캠페인, AI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고수리 견적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운영할 예정이다.

이밖에도 차봇은 플랫폼 내의 자동차 및 라이프스타일 용품 등을 판매하며, 커머스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차봇마켓에서 실제 판매 중인 일부 제품들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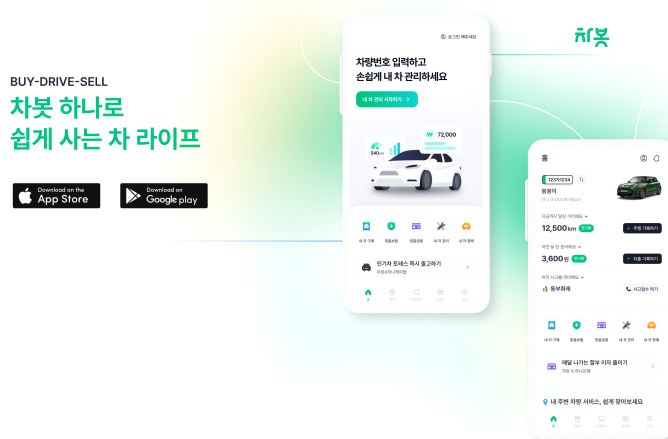
한편, 차봇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차봇모터스도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,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국 이네오스 오토모티브(INEOS Automotive)의 정통 오프로더 ‘그레나디어(Grenadier)’ 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.

조직위 관계자는 “차봇 모빌리티가 이번 모빌리티쇼에 합류하면서 아직까지 오프라인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운전자를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” 며 “이번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지평을 넓힐 것” 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조직위는 미래차와 로봇, MaaS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의 확장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 행사 명칭을 서울모터쇼에서 서울모빌리티쇼로 변경했다.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3월 31일(금)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9일(일)까지 총 10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. 언론 공개행사(프레스데이)는 개막에 앞서 3월 30일(목) 진행된다.

\* 운전자 모빌리티 플랫폼 : 자동차의 구매, 관리, 판매, 라이프 등 운전자 생애주기 내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

\* 별첨자료 1 : 차봇 어플리케이션 소개 이미지(제공 : 차봇 모빌리티)



\* 별첨자료 2 : 차붐모터스 ‘이네오스 그레나다이어’ (제공 : 차붐 모빌리티)

